



간호사 이야기 간호 게임

우리병원 간호사 이야기

2022. 01 | KBSMC Nurse's Story Vol.34



감사 WiFi 2021년 감사했습니다



같은 듯 조금씩 다른 하루를 보내며, 매일 같이 저녁이란 시간이 찾아와 하루를 되돌아보게 된다. 작년도 올해도 코로나가 일상의 화두였고 '일상 회복'이라는 작은 희망을 꿈꾸었으나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어느덧 '연말'이라는 녀석을 만나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무엇보다 고마운 동료들이 생각이 난다. 나 혼자만 잘해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병원생활'... 지난 호에 이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널스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먼저 중환자실에서 간호본부 교육팀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교육팀은 교육의 변화뿐만 아니라 설립 이래로 늘 변함없이 간호본부의 중심이 되어왔습니다. 경력직이든 신입이든 모든 간호사들은 예외 없이 입사교육을 통해 어엿한 직원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렇게 동료로 만들어진 우리 간호사들은 교육팀으로부터 더 많은 지식, 더 나은 실무를 배우며 각자 한 걸음씩 더 성장해왔습니다. 덕분에 저를 포함한 많은 간호사들이 제자리에서 멈춰 서지 않고 꾸준히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례 없던 팬데믹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모두가 지쳐 있고 '마음의 여유는커녕 의식주 해결도 힘들다.'고 외치고 있을 때에도, 교육팀은 멈추지 않고 새롭고 안전한 방법을 고안해 냈습니다.

'지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공부라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짜여진 '임상 간호사를 위한 커리큘럼'을 병동과 중환자실로 나누어 화상회의를 통해 누구든 편하게 들 수 있게 준비해낸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시간에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 그 양질의 교육 자료를 편하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업로드 해놓는 배려까지. 또한 이 교육과정을 위해 여러 과의 전문의 선생님들, 전담간호사 선생님들, 전문간호사 선생님들을 섭외하고, 교육 자료를 만들고, 영상을 촬영해서 다듬는 수고스러우셨을 일이 앞으로 얼마나 우리 병원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생각하니 왠지 제가 다 뭉클해집니다.

퇴근하고 듣는 사람들을 배려해 저녁 강의도 운영하느라 밤 8-9시까지도 불이 환히 켜져 있던 교육팀 사무실을 보다가 은근하게 전해진 교육팀 선생님들의 열정에 감히 모두를 대표하여 대신 순도 높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임순연, 소혜은, 왕선호, 권용주 선생님 덕분에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담간호사가 간호본부 수술실에 전달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본부 수술실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2009년 입사 후 병원 생활과 업무들이 저에게는 너무 생소하고 낯설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임상 전담파트 간호사들은 소속은 전담 간호 파트이지만 입사를 하고 나서는 각 소속 진료과에 따라 수술실에 내려가 수술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시절부터 함께 한 수술실 파트장님과 수술실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한 부서 식구인 것처럼, 같은 부서원, 후배에게 알려주듯이 친절히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병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업무와 생활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3년간 외과 전담간호사 생활을 잘 해올 수 있었던 밑거름에는 수술실 선생님들의 사랑과 보살핌이 있어 지금까지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해결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시는 수술실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제 병원생활은 완벽히 적응했지만 한 번씩 혼자서 외롭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수술실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여전히 제가 입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에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차근차근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 수술실에게 전달합니다. “수술실 선생님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응급실 미화반과 보안요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이루어지는 방역과 표면 소독, 그리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응급실에서 늘 한결같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미화와 보안 요원 분들!! 저희 응급실의 진정한 숨은 영웅입니다.

미화담당자분들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수차례 D kit를 입고 벗고 하시며 감염 전파 예방과 환자 관리에 같이 동참하여 주시고 격리실 화장실을 환자나 보호자가 이용하시면 이용하실 때마다 표면 소독을 매번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손발이 착착 맞아져 ‘소독해야 하는데’라고 생각할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다음 업무에 차질 없게 마무리해 주십니다. 보안요원분들은 추우나 더우나 응급실 입구에 서서 모든 응급실 내원 환자, 보호자 응대를 하십니다. 응급실 입실 환자 중 주취자나 자 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지킴이 역할까지 담당해 주시면서 응급실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응급실에서 절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빛과 소금 같은 존재! 미화반과 보안요원 분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빠서 표현하지 못한 마음 이렇게 두서없이 전합니다. 해피 뉴 이얼!!



B관9병동에서도 보안요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저희 신경과 병동은 신경계에 변화가 있는 환자분들이 많아 난폭하고 폭력적인 성향의 환자분이 많은 편입니다. 의식 변화로 환자분이 난동을 부려 무섭고 당황될 때 호출하면 1층에서도 단숨에 뛰어올라와 들쭉하고 멧진 모습으로 환자 말을 들어주고, 진정시켜 주시는 보안요원분들!!! 그야말로 전 병동의 안.전.한. 해결사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병동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되었는데 병동의 출입 통제를 안전하게 맡아 주셔서 또 한 번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를 지켜주고 현장을 안전하게 통제해 주셔서 항상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크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별 지킴이! 선별 진료소에서 분자유전 파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분자유전 파트! 아마 선별 진료소에서 가장 많이 의사소통을 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곧 선별 진료소에서 가장 많은 부탁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본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검체까지 하루에 약 1000개 이상의 검체를 다루시지만 항상 빠른 협조와 또 응원 인사를 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검체 결과가 빨리 필요한 입원 전 환자, 확진 가능성이 높은 환자, 직원들, 직원의 가족 등의 검체 등에 어쩔 수 없는 부탁

전화를 드리게 될 때면 항상 예상시간 보다 빠른 결과를 주십니다. 검체가 급해서 손수 검체를 들고 검사 파트에 이송을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이 검체 몇 시간이나 걸릴까요?”라고 물어보면 눈앞의 많은 검체에 한숨부터 나올 것 같지만 “최대한 빨리해 드릴 게요!”라고 밝게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업무개선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양성자의 경우는 저희가 포스트잇에 확진 과거력을 적어서 보내 드리곤 했는데, “이렇게 붙이는 것은 간호사 선생님들의 일이 이중일듯 해서 그냥 뚜껑에 x 표시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더욱 간단해진 프로토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총 500개 정도의 검체를 선별 진료소에서 내리게 되는데, 검체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러 번 의견 조율이 필요했을 때에도 항상 양 부서의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검체 분실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한 것은 “바쁘신데 감사합니다.”라고 전화 통화를 끝맺을 때면, “선생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답인사를 해 주셔서 저에게 많은 응원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응원을 받기 전, 부탁을 해야 했던 저의 무거운 마음이 녹아지며 힘을 내서 근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다른 직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는 동료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만들어준 분자유전 파트. 병원에는 정말 보이지 않게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과, 고운 말씨로 마음을 녹여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선생님들이 많이 바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2021년 한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Challenge
Organization
Raise up
Expertise

C.O.R.E팀

지난 9월, 병동간호 1등급 상향에 따라 간호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다양한 질환의 환자 간호 역량을 갖춘 특화된 핵심 간호인력 지원팀인 C.O.R.E.팀(이하 코어팀)이 구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팀으로의 도전이 쉽지 않았을 텐데 무엇이 그녀들을 움직이게 하였을까요? 그리고 현재, 미래의 코어팀 모습까지 확인해 보는 코너! 권하영, 김윤희, 양규원, 양준희 코어팀 간호사들을 널스스토리에서 만나봤습니다.

01 | 어쨌든 코어팀...! 우리는 왜 코어팀에 지원했을까요?

간호본부에서 새롭게 지원 간호사 제도를 재정비하고 팀 이름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고 이곳이 내가 갈 곳이라는 것을 운명처럼 느꼈습니다. 한 병동에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했고, 이제 좀 다른 병동에서 일하고 다양한 환자와 케이스를 만나 스스로 성장하고 싶었던 욕구가 넘쳐나기 시작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다!'라는 생각을 본능처럼 한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는 입사 후 같은 병동에서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업무들이 익숙해지던 때에 내가 일해보지 않은 새로운 병동에서 몰랐던 환자 간호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주어 보람된 일을 해보자'라는 조금 더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생각 VS 근로 조건 중 '나이트 근무가 배제된다.'는 나 자신을 위한 생각... 양가감정 속에서 '어쨌든 다양한 환자 간호 경험을 쌓으면 환자를 케어할 때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지?'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내가 모르는 것 없는 슈퍼 프로 간호사가 되리라고 기대한 적은 없었지만, 지원 공고를 보는 순간 '바로 이것이 내가 한걸음 성장하게 될 시작점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이끌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몇 년간 일했던 정든 병동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동안 내가 마주했던 임상경험을 토대로 병동간호사로서 어떤 상황에서나 적재적소에 맞는 핵심이 되는 프로가 되고 싶고, 모든 병동에서 느끼는 인력난에 코어팀이라는 역할에 맞게 저희가 병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02 |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대하게 변할 우리들

익숙하지 않은 업무, 모르는 것에 대한 부담, 소속감 결여와 근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을 접하면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배워가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우리 중 몇 명은 MBTI 유형 중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적응하기 힘든 인프피(INFP)입니다. 처음에 낯을 가려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질문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일이었고, 친한 동료들이 모두 걱정할 정도로 코어팀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병동마다 인계장이 다르고 인계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각 과마다 환자 간호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달라서 겁이 났었는데, 매일 조금씩 잘 하기 위해 생각하고 서로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노력하다 보니, '낯선 환경'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배우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적응 기간 동안 새로운 곳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생각을 이겨낸 제 자신을 칭찬합니다:D

코로나로 인해 점차 각 병동 메인 진료과의 경계가 불분명해져 환자 간호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자 익숙한 진료과에 대해 알려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평소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꼈고, 타 부서의 간호사들과 소통하고 그 부서만의 고충을 알게 되어 간호업무와 지식 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리더십 또한 길러지게 되어 그간 너무 익숙했던 나의 직업 '간호사'에 대한 만족감도 새삼 높아진 것 같아 스스로 뿌듯하기도 합니다.

지원나간 병동마다 저희를 늘 고마운 존재로 인식하며 표현해주고, 사소한 것을 물어볼 때 마다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는 강소현 병동 팀장님 이하, 각 병동의 파트장님들과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03 | 코어팀만의 확고한 정체성 확립을 통한 간호본부의 자부심으로 발전

저희는 코어팀 1기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시작이 참 좋았다는 평도 듣고 싶은 것이 솔직한 저희 팀의 생각일 것입니다. 각 병동에서 핵심인력들이 모여 한 팀을 구성하였고, 병동 곳곳 저희가 필요한 곳으로 지원나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큰 자부심입니다. 단기간 거쳐간다는 백업인력의 인식, 우리가 어디 출신이었고 누구였던 간에 지금 우리 병동을 위한 지원 간호사라는 사실에 동료애가 발휘되고 조금 더 서로서로 지지해준다면 코어팀은 더 잘 성장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바램을 통해 조금 더 다듬어져 정체성 확립이 잘 이루어진다면 Nursing influencer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코어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단단해지고 성장되어 병동 지원 간호사로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두루 특화된 선생님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과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누구도 출발하지 않았고, 도착하지 않은 낯선 항해를 시작한 C.O.R.E.팀! 권하영, 김윤희, 양규원, 양준희 간호사들을 기억해주세요! 사랑을 먹고 자란 꽃들이 시들지 않듯 저희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오프 있으면 소개시켜줘

장기 오프를 다녀온 선생님들과 취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환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더욱 다양한 제도로 우리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직무에 대한 만족도 또한 수직 상승될길 기대하면서 우리 간호사들은 어떤 오프를 보냈는지 들어보자!

-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 #돌아와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에요 ㅋㅋ
- #충분히 실 자격 인정!
- #환자와 동료결을 든든히 지킨 그대들이 진정한 히어로

일반 병동 간호 1등급을 달성하며 생긴
단기 무급 휴직 제도와 **Sleeping off** 도입

5년 이상 장기근속 간호사 cheer up을
위해 도입된 **Re-charging** 휴가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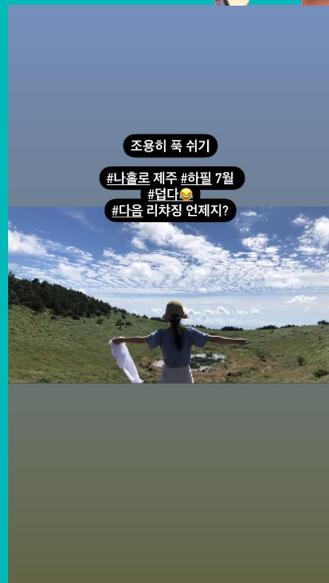
교대 근무자들에 대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B관 12병동 이용화
2021. 04 리차징

뽕뽕이 흠뻑 젖어있는 동기들과
휴가 중에 시간 맞추어 여행
다녀오기

동기여행
#안제프이탈게쉬지
#갑자기에사심 뽕뽕
#첫 렌트 #복직못할텐



B관 7병동 오해나
2021. 07 리차징

이번 여행의 테마는 혼자
조용히 푹 쉬기

조용히 푹 쉬기
#나홀로 제주 #하필 7월
#덥다
#다음 리차징 언제지?



B관 6병동 황보영
2021. 09 리차징

신나게 낚시하며 에너지
Re-charge 하기
#9월은 백조기_쭈꾸미_갯오징어 시즌
#지금은 우럭시즌

낚린이 장비 다 갖추
#에너지 충전 #반이웃안녕
#이제열심히일할게요



중환자실 유민지
2021. 06 리차징

5년간의 병원 생활의 지친
몸과 마음을 한번에 날려줄
제주 한달 살이

제주 한달 살이
#내 꿈은 고래 #아직도 꿈 같아
#RE CHARGING 또 주세요



자주 못와서 미안해
#6개월만에 #당당이 #힐링

B관 9병동 신예빈
2021. 06 리차징

휴가 덕분에 그 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당당이와의 시간 보내기



#우리 #사랑 이대로
#리차징만 갈아려 :D

A관 6병동 장슬기
2021. 11 리차징

나의 반쪽과 북촌나들이 분명히 왔던 곳인데 공기가 다른건 기분탓?!



비킷 리스트
#독도사랑 #날씨요정
#파트장님 오피 좀 더 쓸게요

응급실 장세경
2021. 07 연차

3대가 덕을 쌓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아름다운 독도에서 비킷리스트 클리어



일 연하니까 정말 좋네
#호캉스 #몬드리안 #내일은있다

현장교육리더 이예원
2021. 11 연차

일 안하는 게 재밌을 줄은 몰랐던 자의 호캉스 1000% 즐기기



#제주버디 #운저서도 #풀다

코어팀 권하영
2021. 11 연차

내 속 시끄러운 소리는 파도 소리로 덮기...



골프는 리프레시더
#골린이 #웃희도재밌음 #벤디502권아람

B관 14병동 최나영
2021. 10 연차

초록 초록한 잔디와 맑은 공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라운드

간호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강윤구 기자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는 하루.

어느덧 자연스럽게 출근해서 익숙한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는 당신! 무척 당연해진 일상에 어찌면 잠시 잊을지 모르지만, 당신은 이 순간에도 환자 옆을 지키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잠깐. 이 글을 읽는 잠시 동안만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어떤 간호사인가요? 또 간호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덕분에' 챌린지가 유행하며 모두가 간호사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내던 2021년의 대한민국에서 진짜 간호사인 당신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당신이 더 쉽게 머릿속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기,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간호'의 가치, 보람에 대한 글을 정리해 봤어요.



01 | 가장 같이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미국에서는 'Bed side nurse'라고 흔히 하더라구요. 저는 이 단어가 꽤 근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침대'는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침상 바로 옆'에서 일하는 우리는 누구보다 환자와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으니, 또 환자들은 우리를 믿고 그 만큼의 품을 내어주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역시 환자들이 회복하는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의료인으로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사실 이런 얘기는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너무 꾸며진 얘기 같아서 저는 그러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임상에서 일하다 보니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입원하시는 항암 환자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보고, 그만큼 서로 가까워지니 무척 감정적으로 벅찬 순간들을 자주 맞이합니다.

02 | 최전방에 있다는 자부심, 이 시국에 더욱 느낄 수 있는 보람

중환자실에서 제법 오랜 시간을 일하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실 항상 일하면서 제일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기에 이번 코로나 병동에도 큰 고민없이 자원하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D-kit를 입으면서부터 조금 떨렸어요. 제 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갑갑한 옷과 모자 안에 막상 들어가보니 두려움이 마음 한 켠에 어느새 자리 잡아 딱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행여나 격리실에 들어가서 무언가 잘못하거나, 혹은 옷을 입고 벗을 때의 작은 실수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렇다고 자원해서 나온 지금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가능한 이 떨림을 숨기고 격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곳은 음압기가 돌아가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얗고 긴 복도에 차곡차곡 놓여 있는 병실에 들어가면 오롯이 환자와 저 뿐이었어요. 그 안에서 어떤 환자들은 의식없이 잠든 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또 다른 환자들은 그저 나른한 표정으로 지긋이 창밖을 쳐다보고 있곤 했어요. 체온을 재고, 설명하거나 약을 드리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있다는 느



낌이 들어 어쩐지 조금 벅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 홀로 남은 환자들, 또 그들을 기꺼이 돌보는 우리 병원, 또 더 나아가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그 기간 동안 그 곳에서 두려움을 금세 씻어내고 일할 수 있던 연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03 | 전문직으로서의 위상

입사 후 1년 동안은 조금 무서웠어요. 제가 사고 치지는 않을까 불안하기도 했고, 일만 따라가기에도 벅차서 솔직히 내가 진짜 간호사가 맞나 의문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별달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프리셉터 선생님 말 따라 독립하고 몇 개월간 꾸준히 자주 보는 질병과 경과, 약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또 복습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전에는 전혀 안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이해되고, 더 명확하게 그려지더라구요. 그제서야 왜 간호사가 전문직인지, 겨우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이 어떤 건지 스스로 깨닫고 나서는 그냥 시간이 흘러 연차가 쌓이는게 아닌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간호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하루가 쌓여왔고 이제 저는 제 분야에 대해 공부하며 전문직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저도 프리셉터가 되어 트레이닝에 들어갑니다. 제 프리셉티에게도 제가 조금씩 쌓아온 것들을 나눠줄 것을 생각하면, 또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과정을 생각하면 또 조금

설렍니다. 이렇게 내일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제가 간호사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안정감이 큰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간호의 가치 아닐까요.

04 | 좋은 동료들과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다는 소속감.

'우리 일'은, 도무지 혼자 해낼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어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간호'라는 것이 사람을 돕는 일이므로 어쩐면 간호의 속성에 따라 우리끼리도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어쩐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환자를 받을 때, 모두가 피하고 싶은 응급상황, 시술 및 수술 준비 등. 항상 묵묵히 도움을 주고 쿨하게 떠나는 선생님들의 뒷모습에 감사합니다.

혼자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누군가가 함께 확인해주거나, 지켜보거나, 기록을 도와주고 있죠. 차지선생님, 프리셉터 선생님, 혹은 동기들이요. 생각해보면 그 지켜보는 눈빛에 기대어 여지껏 일해올 수 있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바쁜 오후에도, 생각지도 못한 응급상황에서도 '팀'이라는 이름아래 많은 선배, 후배, 동기들이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기에 다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같이 걸어온 시간들이야 말로, 이 간호업무의 가치일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들

간호본부 호캉스 시상

3교대 근무를 3년 이상 연속 시행한 간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치하하기 위한 호캉스 시상(서울시내 호텔 1박 숙박권과 식사 상품권)이 지난 12월 말 시행되었다. 각 부서별로 방문하여 진행된 시상식에서 정상이 간호본부장은 “지혜롭게 잘 적응하고 이겨내 간호본부의 유능한 간호사로 잘 자리매김해 주어 감사하며, 그동안 힘들었던 심신을 호캉스로 잘 날려보내고 더욱더 역량 있는 간호사로 잘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환자실



A관 6병동



B관 9병동



응급실



B관 12병동



B관 14병동



B관 15병동



2021 중환자 간호 마스터 과정





중환자 간호
MASTER
Nursing Department

Master 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핵심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간호본부 인증제도로 2021년 6월부터 6개월간 병동 및 성인 중환자 과정으로 진행 되었고 총 45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성적 우수자 13명에게 인증서와 마스터 배지를 수여하였고, 이중 최우수 중환자 간호 마스터로 선정된 2명에게는 해외연수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성인 중환자
최우수 마스터**



중환자실
이성애 간호사

**병동 중환자
최우수 마스터**



신경외과 전담
신영길 간호사

성적 우수자

중환자실	고희주	A관 8병동	윤석주	중환자실	정선현
B관 15병동	권세정	B관 6병동	윤지수	B관 10병동	최선희
B관 15병동	빈다솜	중환자실	이성애	혈관조영실	최일찬
이비인후과전담	서광훈	간호교육팀	이슬기		
신경외과전담	신영길	A관 7병동	이지선		가나다순

6개월간 진행된 중환자 마스터 과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 외래 간호팀!



중환자 케어의 시작 병동 간호팀!



중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중환자 간호팀!



전문적인 중환자 간호 전담 간호팀!



"간호법 제정 촉구" 간호대생 호소에 청원 20만 돌파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대 학생의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서다.



대한간호협회가 1월 5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129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올라온지 1주일 여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현재 해당 청원은 국민청원 보건복지분야 추천 1위, 전체 추천 2위를 기록 중이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을 통해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에서 간호사를 꿈꾸고 있는 간호대생”이라

고 밝힌 뒤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5.9년, 평균 퇴직 연령은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로, 간호사들이 임상현상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력 간호사의 이직과 사직은 사회적 비용 손실이 굉장히 큰데, 그 이유는 숙련된 간호사가 사직하면 그 자리를 신규 간호사가 채워 결국 환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간호사의 일터에 업무 경계와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다 보니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현직에서 일하는 비율은 10명 중 4명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해지는 간호사 역할과 달리, 법률상 역할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안에 ‘진료보조 및 영양상의 간호’라는 한 줄로 쓰여 있는 것이 전부여서 질 높은 간호를 수행할 수 없고, 간호사 업무환경, 처우개선도 미흡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간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주목을 받으면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3건을 심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청와대의 직립 소통은 '국민이 물어보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립 중앙 관제,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장합니다.

지금 참여하기 | 내 정부 보기

분류	제목	발문 연도	참여인원
문화/예술/체육/연예	드라마 샐* 발명중지 장만	2022-01-19	361,872명
보건복지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2022-02-02	200,129명
정치개혁	경찰이 단일한 대응으로 환경이 바뀌면 '인전' 중단을 용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	2022-01-26	68,315명
기타	코로나 1차 집중 후 비상상태에 빠진 제 딸을 살려주세요!!!!!!	2022-01-26	65,810명
기타	초등6학년 여제이름 11명이 보복 폭행한 사건입니다 도와주세요	2022-01-14	62,698명

1월 10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사진 제공= 대한간호협회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T99CNND>



열악한 간호사 처우, 간호법은 국민을 지키는 법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YouTube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나오데라고 틀어는 뵈나?

라떼는 말이야 ...

아니 나만 이렇게 생각 하는 거야?
 아니잖아?
 원래 이게 예의인 거잖아?
 아니라고?
 나만 그런거라고..?
 실화야..?
 나 혹시.. 진짜.. 꼰대가 된 건가..?
 애두라 잘봐라
 이게 언니, 형아들 생각이다~



재미로 보는 널스스토리 꼰대테스트

※ 참여하기전 잠깐! 예/아니오로 '무조건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 질문에 10초 이상 고민이 되면 정답은 「Yes」입니다.

☞ 옆에 함께 읽는 후배가 조금이라도 의문스럽게 쳐다보거나 침묵이 흐르면 정답은 「Yes」입니다.

1. 우리 병원에서 내가(우리 병동만) 제일 힘들 게 일하는 것 같다.	Yes	No
2.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걸? 내가 우리 부서/병동 문제 해결사다.	Yes	No
3. (후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알려주는 편이다.	Yes	No
4. 후배가 뭐 아는 것처럼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	Yes	No
5. 라떼는 더 힘들게 일 했는데 요즘 병원 참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Yes	No
6. 라떼는 하라면 했는데, 요즘 후배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다.	Yes	No
7.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이해가 안 된다.	Yes	No
8. 먼저 출근해서 리뷰보드 출력 안 해놓는 후배가 이해가 안 된다.	Yes	No
9. 나보다 칼퇴하는 후배가 이해가 안 된다.	Yes	No

10. 끝까지 기다렸다가 인사 안하고 퇴근하는 후배가 이해가 안 된다.	Yes	No
11. 이미 인계 받았지만 수혈15분 바이탈 안하고 가는 후배가 이해가 안 된다.	Yes	No
12. 라떼는 나오데도 당연히 했는데 요즘엔 N//D가 힘들다고 파트장님 찾아가는 후배가 이해가 안된다.	Yes	No
13. 말할 때'우리는 ~를 해야 한다'로 결론짓는 편이다.	Yes	No
14. 평소에 일 하면서 듣는 것보다 말할 때가 많다.	Yes	No
15. 나 혼자 힘들게 수술/시술 환자 받는데 도와주려 안 오는 후배가 이해가 안 된다.	Yes	No
16. 힘들게 일하는 중간년차 노고는 이해 못해주고 후배들만 우쭐쪼 해주는 파트장님이 이해가 안된다.	Yes	No
17. 동기들과 말하다 보면 무심코 '요즘 애들은~' 같은 대화 주제가 나온다.	Yes	No
18. 후배에게 진작 얘기해 놓은 일이 처리되어 있지 않으면 앞뒤 사정을 떠나 일단 화가 난다.	Yes	No
19. 다음달 오프신청 장부가 나오자마자 오프 신청을 몇 개씩 써 놓는 후배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Yes	No
20. 듀티표가 나오면 내 근무외에 다른 사람들 오프 몇 개 인지도 항상 확인하는 편이다.	Yes	No
21. OCS, EMR, 규정 바뀌는 게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처리해 줄 때가 많다.	Yes	No
22. 일 할때 정신차려보면 누군가 나에게 커피를 타주는 편이다.	Yes	No
23. 부서 내에 사적인 연락을 하는 후배가 10%미만이다.	Yes	No
24. 온통소통/블라인드 등에 익명으로 부서원이나 선배들을 욕하는 글들이 이해가 안된다.	Yes	No
25. 바로 지금 고개를 드니 혼자만 덩그러니 앉아있거나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앉아있다.	Yes	No



채점판

- 0~5개 신규 간호사죠? 아니면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 6~10개 음... 이 정도는 누구나 생각합니다! 티도 안나요. 아마도 친구 같은 선배?
- 11~15개 친할 땐 친하지만 일할 땐 카리스마 찌는 선배!
- 16~20개 아주 조오오금 어려워지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합리적인 선배!
- 21~25개 각자 카트를 가지고 후배들이 하나 둘 당신의 옆 자리를 떠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변이 싸해지는 느낌.. 기..기..기분탓이겠죠..?

크흠.. 재..재미로 한 거니까 결과에 과도한 의미는 부여하지 마세요 :) 즐거우셨나요?
 이 문제들을 열심히 읽으며 채점까지 해본 당신은, 이미 부서 분위기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 분명하네요.
 이 테스트를 결과를 핑계삼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오늘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널스스토리는 선생님의 따스운 하루를 기원합니다!

지난 호에 너무 핫해서 다시 돌아왔다! 나의 반려동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키우면서 얻게 되는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우리 병원 선생님들은 어떤 반려동물과 어떤 일상을 함께 하고 있을지 한 번 들여다볼까요?

집사와 네 이야기들이 올테남

마이PET  **댕냥TV**

#키여워 #버워얼V #줍줍사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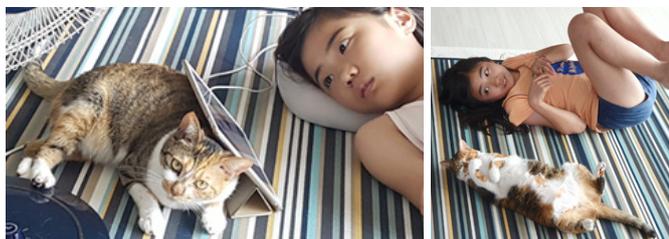
01 | 우리는 운명? 신경계 중환자실의 가족 울무 신경계 중환자실 홍성원 간호사



정서적으로 지쳐가며 책임감 갖는 삶에 대한 의지를 찾고 있을 때 울무는 운명처럼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많이 졌었는데 함께 지내는 6개월 동안 저도 울무도 건강히 겨울을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답니다. 현재 울무는 튼튼 통통 고양이가 되었어요^^ 신경계 중환자실의 가족인 우리 울무는! 똥그란 얼굴과 똥글 똥글한 눈, 너구리 꼬리가 아주 차밍 포인트입니다. 오른손은 긴 양말, 왼손은 발목 양말의 짹짹 양말도 소화해버리는 힘찬 울무는 먼저 엄마한테 다가와 짹짹~ 쓰그만 입이 아주 짹짹 뽀뽀 냥이예요. 더 많은 울무의 사진과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yulmu0)로 눌러주세요. 팔로 팔로미!! ♥

02 | 본캐는 팀장, 부캐는 알콩맘 강소현 병동 팀장

우리 둘째 알콩이는 초등학교 딸아이가 하고 후 엄마,아빠 퇴



근 전까지 집에 혼자 있기 무섭다고 해서 고심 끝에 입양한 아이입니다. 처음에는 털 때문에 제가 심하게 반대했지만 아이 아빠가 털 청소와 밥, 화장실 청소를 다 한다는 조건으로 입양을 결정하게 됐는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알콩이를 좋아하는답니다. 사실 휴대폰에는 딸아이 사진보다 알콩이 사진이 더 많아요^^ 둘째가 들어오면서부터 “각자”에서 “함께”로 생활을 바꾸게 해준 알콩이는 사랑입니다. 자식 사랑은 팔볼출이리는데... 우리 냥이 이쁜 거 좀 구경하세요~

03 | 우리 집 영원한 막내가 쪼리 안과 전담간호사 이선민

2009년 여름 방학, 강아지를 키우게 해주면, 졸업 때까지 장학금 받겠다는 말도 안 되는 거래 조건에 착고 소중한 뽀실이는 “쪼리”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찬란한 나의 20대를 함께 보낸 쪼리는 10살이 되던 해부터 폐수종을 진단받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안구를 적출할 뻔한 일도 생겨 어찌면 이별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저를 포함한 가족들 모두 이전 보다 듬뿍 사랑을 주고 있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덕분에 쪼리 건강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쪼리, 노견이어도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04 | 구피 보면서 물멍하기 마취과 전예지

입사 후 3년 차, 일은 여전히 힘들고, 마음의 힐링은 더욱 필요했는데, 그때 구피를 만났어요. 색깔도 예쁜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구경하는데 저도 모르게 저절로 물멍하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구피를 보고 있으면 잡념이 사라진답니다.



치어(구피 새끼)를 낳는거 보셨나요? 알이 아닌 새끼를 낳는 열대어라 '뽕'하면 나올 줄 알았던 물고기가 출산의 고통을 느끼는 듯 인고의 시간을 거쳐 출산을 한답니다.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죠. 내가 주인이라고 알아봐 주면 좋으려만 ㅠ.ㅠ 그래도 우리 구피들은 제가 다가가면 먹이 주는 걸 아는지 꼬리를 격하게 흔들면서 저를 반겨준답니다. 서로 만질 수 없는 사이지만 이렇게 애뜻하게 교감하고 있답니다.

05 | 애교 천재 똑똑한 나츠 씨 당뇨센터 권희정 간호사



치즈 냥이, 카오스 냥이 형제들 사이에서 잉크 떨어진 막둥이 나츠가 태어났죠. 정수리만 누리끼리한 게 차밍 포인트 같아 사진 보자마자 당장 가족으로 삼았어요. 3박 4일 간 떨어져 있었는데 영상 통화로 보이는 제 목소리에 부리나케 달려와 전화기에 볼을 비비고 우영 우영 우는 나츠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 제 발소리만 들리면 현관문 앞에서 우애앵 우애앵 배를 뒤집고 애교 부릴 준비를 하죠. 집사는 퇴근의 기쁨을, 나츠는 집사를 만난 기쁨에 연분홍색 코가 핫핑크가 될 정도로 한참을 장난치고 잠잘 때도 배 위에 자석같이 올라와 골골

송을 부르며 한참을 꺽꺽이 하다 코골며 잠드는 나츠입니다. 간식시간에는 '앉아! 기다려!' 명령어도 따르는 우리 똑똑한 나츠, 오래오래 건강하자♥♥

06 | 일상이 행복 가득한 두 모녀 초파와 루피 응급실 최수경 간호사

초파는 2013년도 겨울, 반려견을 분양 받으러 간 곳에서 나를 키워 달라는 눈빛으로 뒤뚱거리며 달려오는 모습에 한눈에 반해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저를 잘 따르고 말 잘 듣는 우리 초파는 나이 든 지금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초파가 루피를 낳을 당시 저에게 와서 허로 핥으며 도와 달라는 눈빛은 아직도 잊혀 지지 않아요. 그래서 분만하는 곳으로 가서 함께 누워있었죠. 긴 진통 후 루피와 오빠인 리우가 나왔을 때의 생명의 신비함이 아직도 눈앞에 그려져요. 토실토실한 엉덩이의 초파와 흰 털 사이에 있는 까만 단추 3개가 있는 루피!! 사랑 가득한 두 모녀의 일상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chopa_loopy) 놀러 오세요.



07 | 사냥 천재 개냥이 루트 B관 7병동 유재은 간호사

루트는 20년 봄 인천의 놀이터에서 유기된 유기묘였어요. 처음 키울 때는 작은 일에도 동물 병원을 들락날락했지만 이제 어느덧 행복한 집사 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상근직을 하다가 바뀐 근무 패턴에 루틴으로 해왔던 식사, 놀이, 수면패턴이 갑자기 바뀌었지만 울지 않고 천천히 옆에서 따라와 준 루트가 너무 대견했어요. 제 패턴을 이해하고 신기하게 기다려주는 루트는 천재 고양이가 아닌가 싶어요.

또 루트는 사냥 천재, 공 잡기 천재랍니다. 장난감 새나 공을 잡고 뒷발 팡팡을 할 때면 너무 귀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가끔 절 너무 쫓아와 샤워할 때나 불일 불 때까지 함께 하는 게 문제긴 하지만 제 아들이자 친구이자 반려묘 루트는 사랑둥이입니다~



美

味

맛이정!

두번머경!

종로구 최고의 맛집

병식 예찬



이런적 있지 않나요?

식사하다가 내 병동의 C.P.R. 방송을 듣고 밥을 푸다가 그대로 두고 나온 적.
 일하다 너무 배고파서 욕심만큼 음식을 듬뿍 담았는데 막상 다 못 먹고 나온 적.
 배고픈데 식당 못 가서 병동 간식으로 배를 때운 적.
 식사가 사치라고 생각하고 배고픈 것도 느끼지 못한 적.
 식당 가는 거 대신 얼음이 녹은 물 반 커피 반 아메리카노라도 원샷
 나이트 때 차려놓고 못 먹은 야식, 통통 불은 라면과 차게 식은 국밥.



당신에게 병식이란?

라면과 테이크아웃코너가 생겨서 그날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식사할 수 있고 식사시간을 놓치거나 바쁜 사람도 간편하고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어서 좋다. 고를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해지니 밥시간이 기다려지니 식당 입구만 가도 뉘뉘근근 ♥
B관 6병동 박초혜

간편식은 자취생의 최애편!
 늘 초과해서 먹는 프로훈밥러로서 so good!!!!
환자행복 파트 이해정

마이 보글 2탄!!
 즉석 떡볶이도 해주세요~~~
수술실 서예원

퇴근하면서도 들리는 병식~~
 근무질까지 수직상승~!
B관 11병동 서아영

아침 메뉴도 다양해서 출근하면서 먹고 든든하게 근무를 시작할 수 있어요~~!!
당뇨센터 김지빈

깨끗하고 쾌적한 식당에서 간편식, 라면 등등 선택지가 많아져 매일 행복한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땡큐예요.
B관 14병동 최나영, 황지현

한달에 한번꼴로 식사 투표해서 선호도 높은 메뉴 구성 또한 직원들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 좋아요.
B관 14병동 정은재

예전에는 밥 포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메뉴의 질도 맛도 좋아져서 기대가 돼요. 웬만하면 가려고 해요.
B관 12병동 김수정

같은 라면이여도 스테이션 라면과 병식에서 먹는 라면은 차원이 다르쥬~~
B관 9병동 신예빈



식당에 밥 먹으러 못 갈 때 동료 간호사가 사원증 챙겨서 간편식을 가져올 수 있어서 좋다.
 무엇보다 병원에서 우리의 식사를 신경 써주는 것이 좋다.
A관 6병동 김미란

다양해진 식단과 새로운 시도가 좋은 기운으로 다가옵니다.
 염도 선택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현장 교육 리더 김고운

바뀐 식당은!
 창문이 넓어 빛이 환해 식당에 들어가면 마음이 밝아지고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져 마음과도 가까워져 두 번 세 번씩 가고 싶어 지는 곳!
코어팀 권하영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사람들은 평소처럼 어둠 속에서 출근을 한다. '아침밥'을 위해서다. 밤새 일하던 간호사들, 잠 한숨 지지 못한 전공의들, 자의 반 타의 반 병원에 있던 당직자들이 지친 모습으로 모여든다. 하얀 수증기가 희미해질 무렵, 사람들은 '병원의 밥'을 먹고 각자의 하루를 위해 흩어진다. 병원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아침밥이 모두에게 따스함의 발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의 하루도 시작된다.

- 흉부외과 정익석 교수 에세이, 병원의 밥 미음의 마음 속

베스트 프리셉터 수기 공모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베스트 프리셉터 수기 공모전에서는 10편의 수기가 도착하였고, 쟁쟁한 경쟁을 뚫고 2021년 제2회 베스트 프리셉터 수기 공모 최우수상은 중환자실의 강윤구 간호사, A관 6병동의 김미란 간호사가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제2회 베스트 프리셉터 수기공모 수상자 발표

베스트 프리셉터 수상자로 뽑히신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중환자실
강윤구 간호사



A관6병동
김미란 간호사



우수상

- 외4(유갑센터) 김아연 간호사
- 응급실 김영옥 파트장
- B관13병동 이민의 간호사
- B관5병동 장성연 간호사

장려상

- 전담(안과) 나소정/이다솜 간호사
- 응급실 남유정 간호사
- 전담(비뇨의학과) 손태한 간호사
- B관5병동 유인아 간호사



아울러, 2021년 각 부서의 베스트 프리셉터 시상이 있었습니다. 신규간호사의 성장을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각 부서의 모든 프리셉터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베스트 프리셉터 시상

No	부서	성명	No	부서	성명	No	부서	성명
1	B관 15병동	이 하나	8	B관 7병동	유 재 은	15	A관 6병동	김 현 이
2	B관 14병동	장 지 영	9	B관 6병동	윤 지 수	16	내시경실	조 재 윤
3	B관 13병동	이 민 의	10	B관 5병동	이 다 슝	17	응급실	남 유 정
4	B관 12병동	남 보 라	11	A관 9병동	이 자 연	18	마취과	박 소 연
5	B관 11병동	윤 지 회	12	A관 9병동	홍 난 주	19	중환자실	이 보 용
6	B관 10병동	이 미 지	13	A관 8병동	김 예 경	20	A관외래동7병동	이 정 민
7	B관 9병동	이 민 희	14	A관 7병동	임 소 희	21	수술실	김 지 영



베스트 프리셉터 수기 - 최우수작

7년째 못낸 반성문

중환자실 강윤구

내일이면 어느덧 다섯 번째 신규 트레이닝이 끝난다. 고백하자면 프리셉터십을 진행할 때마다 예외 없이 '미안함'에 대해 생각한다. 이 반짝거리는 신입 선생님들에게는 지금 보여주고, 알려주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이 사람들의 임상경험에 있어 밑바탕이 될 터인데 내가 그럴 자격이 충분하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그들이 앞으로도 임상에 남을지는 전혀 다른 얘기이지만)

줄 게 크게 없는 나 때문에 내 프리셉터들이 소위 말하는 '흠수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자주 스스로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더 잘해 줄 수는 없는지, 잘 알려줄 수는 없었는지를 복기 하다보면 예외 없이 부족함에 가 닿는다. 그런 연유에서 프리셉터라는 자리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

다행히 이런 종류의 미안함은 자주 생기다가도 금세 사라지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즈음에 항상 느끼는 더 큰 감정은 바로 내 '프리셉터'에 대한 송구스러움이다. (이는 미안하거나 죄송한 수준이 아니고 진짜로 송구스러울 정도여서 이렇게 쓴다.) 요즘 신입 간호사처럼 착하고 똑똑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대체 그녀는

나를 어떻게 간호사로 만들고 독립시킨 것인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까 짐작하면 금세 눈앞이 아찔해지고 숙면 중에도 반사적으로 이불을 90도 각도로 걸어차게 된다.

처음 트레이닝을 받던 시절의 내 기억은 여느 간호사들보다도 훨씬 바보 같은 실수들, 이기적인 피해의식, 또 그 와중에 넘치던 철없는 감수성이 더해져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흑역사 같은 부끄러운 것들로 마구 뒤섞여있다. 아직도 도무지 맨정신으로 프리셉터 선생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면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항상 감사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지만 아직도 스스로 부끄러워 제대로 진심을 담아 이런 속내를 전해드린 적이 없다. (반성문만 주구장창 많이 써냈다.)

모든게 불투명했던 교육기간동안 다만 또렷하게 기억나는 점은 무엇보다 지독하게 힘들었다는 점. 여타 신입들처럼 새벽녘의 출근길에서 (안 아프게) 교통사고가 나기를 바라보기도 했고 구름다리를 건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짓말처럼 난생처음 부정맥을 여러 번 겪었다는 것.

더욱이 돈을 받으며 일하는 사회인이 되기 전의 나는 지나치게 자유로이 방목되어 자란 탓에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들은 적도,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일도 크게 없어서 중환자실 간호사라는 무거운 어감만으로도 나는 내내 어딘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어른인 척하는 중고딩' 같은 기분이 들었다.

다행스럽게도 철도 없고, 큰 사명감도 없이 간호사가 된 나를 3달이나 데리고 다니게 된 프리셉터 선생님은 무척 침착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었다. 오히려 좋은 엄마를 만난 탓인지 어느새 부터 나는 스스로 처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프리셉터 선생님이 트레이닝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후레자식이 되어 갔다.

그리하여 그 선생님은 뜬금없이 신입 간호사를 독립시키는 게 아닌, 망나니를 사람 새끼로 바꾸어 놓아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루아침에 맡게 되었던 것이다.

예상했듯 당연히 교육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방황하며 2년동안 학교에서 놀기만 하다 도피했던 군대에서 전역하고 1년 만에 졸업한 나는 간호 학생 수준의 전문지식도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일단 동기부여가 없었다. 솔직히 간호사가 되고자 한 것도, 중환자실에 오게 된 것도 순전히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는 것도 없는 모자란 사람이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무척 불안했다. 더군다나 불편한 누군가가 나를 9시간 내내 감시하고 따라다니며 잔소리하는 상황도 적응하기 어려웠고, 그 당시에는 솔직히 대다수가 무척 날카로워서 나처럼 멍멍글글한 사람은 유독 많이 찔리고, 자주 찢어졌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는 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일은 너무 어렵고 바쁘고 그 와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있으며 결국 이쪽 세상은 무척 부조리한 것 투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되는 고통속에 피해의식은 심해져 갔다. 마냥 깜깜한 날들이었다.

그러다 머지않아 처음으로 마주한 심정지 상황. '유니폼만 입었지 전혀 할 수 있는 게 없던' 나는 자괴감에 저머졌다. 눈앞의 풍경은 긴박하고 급하게 지나가는데도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기만 하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나는 에피네프린 냄새에 코끝이 찡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첫 사망선고, 여러 사람의 울음소리 속.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데 울려 퍼지는 빠-소리가 어딘가에서 나를 향해 울리는 탈락음처럼 느껴졌다.

그 뒤로도 약간의 디테일만 변주된 채로 비슷한 상황은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그 멍청한 탈락음은 계속 내 주위에서 들렸다. 가끔 그 소리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인계 시간이나, 밤 근무가 점심때쯤 겨우 끝나 집에 돌아와 지쳐 잠들 무렵에도 자주 이명처럼 울렸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입천장까지 올라왔다가 이내 식도로

삼켜졌다. 그래서인지 그 당시엔 자주 헛배가 불렀다. 적어도 이 병원에서는 내가 제일 힘들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즈음에, 근무 시작 전 우연히 내 프리셉터 선생님이 팀장님과 면담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누가 봐도 심하게 울고 나온 벌겍진 눈과 부은 얼굴을 하고 나왔다. 내 앞에서는 항상 침착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림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으므로 나는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은 눈물을 닦고 호흡을 고르던 와중에 나를 보고 당황한 채 황급히 피해서 돌아갔다. 분위기상 빼박 나 때문이었다. 그 때야 알았다. 이 병원에서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내가 아니었던 것을.

불효 자식은 그제야 스스로 반성하기 시작했다.

아니. 솔직히 저 사람도 그렇게 어른인 나이도 아니고, 몇 년 먼저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큰 벌을 받아도 되는 거냐고. 나 힘든 것만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보던 거라고. 그런데도 저 사람은 아무런 대가 없이 기다려주고, 다독여주고, 진심으로 혼내주고, 힘든 거 내색도 안 하려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감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진짜 아무것도.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와서 평소처럼 나에게 무언가 알려주었다. 그게 뭐였는지는 진작에 잊어버렸지만 분명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목소리가 아직 묘하게 약간 떨렸던 것만은 기억이 난다.

거짓말처럼 그 순간 이후로 거짓말처럼 정신이 들었다. 불투명하게 보였던 것들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불효 자식은 어미 눈물을 먹고 자란단다. 아니면 내가 그 당시에 일기장에 써놓은 얘기인가. 여하튼 정말 감사하게도 덕분에 나는 그나마 여기서 겨우 1인분을 해내는 사람으로 자랐다.

그 뒤로도 프리셉터 선생님과 함께 스스로를 허물고, 다시 짓는 과정이 몇 차례 반복되었다.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의 눈물 위에 지은 튼튼한 밑바탕이 있어 그 뒤로는 어렵지 않게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다. 어느덧 이명이 사라졌다.

물론 나도 프리셉터쉽이 힘들 때 소위 말하는 '현타'를 자주 맞는다. 그러다가도 금세 그 당시에 내가 떠오르고, 그러면 이내 서유진 선생님에 대해 생각한다. 여기까지 다다르면 사랑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오글거리고, 책임감이라고 하기엔 또 무게가 너무 크고 그냥 도움이라고 하기엔 의미가 너무 부족한. 선생님께 받은 그 '어떤 것'을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에 다다르고야 마는 것이다

알터에서의 또 다른 행복, 프리셉티를 소개합니다.

A관6병동 김미란

처음 입사 후 보통의 신규간호사들처럼 병원에 적응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스스로 간호사라는 직업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힘들었다. 옆에 같은 시기를 보내는 동기들과 항상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는 프리셉터 선생님 덕분에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어제보다 조금은 늘어난 정맥주사 실력에 환자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은 흥미로웠다. 부서의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몇 년, 시간이 지나고 병원에서 느끼는 나의 행복은 점차 줄기도 했다. 21일의 월급, 일 년에 한 번 정도 가는 해외여행, 퇴근 후 동료들과 마시는 맥주 한 잔, 환자들이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며 전하는 호탕한 웃음소리뿐이었다. 환자들의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환자나 보호자가 나에게 투사를 하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면 병원에서의 나의 행복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아 퇴직금을 조회해 보기도 했다. 분명, 내가 입사할 때 했던 다짐은 '정년까지 일하는 간호사' 였는데 말이다. 연차가 쌓이면서 내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이 선배들만큼 많이 생겨 있었고 내가 신규간호사일 때 롤모델로 삼고 무작정 따르고만 싶었던 선배와 내 모습을 비교하게 되어 부담스러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던 중 나의 병원 생활에 변환 점이 되어주고,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주는 프리셉티들을 만나게 되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 기울여 주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프리셉터 덕분에 나는 병원에 근무하며 어느 때보다 열정적일 수 있었다. 심화과정 교육 전, 나의 불안함은 계속되었고 부족한 스스로를 채우기 위해 여러 임상에 관련된 교육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 관련 교육, 대화법에 관련된 책도 찾아 읽어보았다.

프리셉터를 하며 동료들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었다. 심화과정 교육과정에서 업무적인 부분은 이전에 선배들이 만들어주고 가신 심화과정 체크리스트를 이용했다. 이것 또한 표준화된 교육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심화과정을 교육할 때 막막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선배들의 염려와 따뜻한 마음이 담긴 것 같다. 내가 처음 독립하던 날, 근무시간이 끝나갈 때쯤 출근하시던 프리셉터선생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위안이 되어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 몰랐지만, 아마도 나의 프리셉터선생님께서도 불안함과 애뜻함이 가득 차 계셨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오래 계속 쳐다볼 일이 있을까? 근무시간 동안 프리셉티의 뒷모습, 손의 움직임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후배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나도 그랬었는데... 심화과정을 하며 프리셉티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어렵구나', '이런 부분이 헷갈리게 정리되어 있구나' 잊고 있던 그 시절의 마음이 떠올라, 부족하던 교육자료를 만들고 부서 내 매뉴얼을 보충하기도 했다.

놀이터 바닥에 유리 조각이나 뽀족한 것을 주워 담는 어린 아이의 엄마를 본 적이 있다. 그런 마음과 조금은 비슷한 마음이었을까? 신규간호사들에게 특히나 차가운 말투나 매서운 눈빛을 옆에서 보고 있으니, 우리 신규간호사에게 그러지 말아 달라며 다 처음이 있지 않냐고 말하는 용기도 생기게 되었다. 의기소침해진 프리셉티에게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응원의 말을 건네고 싶으면서도 어떻게 말해도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최대한 인자한 미소를 지어보려고 노력했다.

근무가 끝나고 사복을 입고 돌아오는 길에는 근무 중에 있었던 잘 못했던 점을 이야기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프리셉티보다는 나의 교육방식에 피드백을 들으려고 노력했다. 어떻게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되고 어떤 부분을 더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는지, 조금 더 기회나 시간을 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등의 대화를 하며 이를 다음날 교육과정에 참고할 수 있었다. 부족했던 부분도 알 수 있었지만, 내가 모르던 나의 장점과 강점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분명, 난 칭찬을 들으려고 이런 질문을 했던 건 아니었다.)

어떤 방법으로 정해진 업무시간에 업무도 소화하며 교육을 하느라,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따뜻한 말과 칭찬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프리셉티들이 프리셉터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표현이 조금 적더라도 병원에 든든하고 포근한 등받이가 하나 생겼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는 3년 전 쯤, 독립하며 프리셉티가 선물해 준 식물이 무럭무럭 자라 화분이 작아서 분갈이를 해주었다. 문득 시간의 흐름이 와닿았다. 출근을 해서 보니, 병동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튼튼하게 뿌리 내려 자기 역할을 해내며 근무를 하고 있는 나의 프리셉티들이 보였다. 이제는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기도 하며 오히려 날 격려해주기도 한다. 본인의 프리셉티가 생겨 그 친구가 독립하고 어려워하면 어쩌나 끝없는 걱정과 근심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애뜻하기도 했다. 그날은 퇴근해서 우리 병원 딸들이 다 컸다고 기뻐하며 가족들에게 한바탕 자랑을 늘어놓았다.

부담감과 불안감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지만, 프리셉티들 덕분에 나도 성장할 수 있었고 소중한 경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었다.



간호업무의 게임화

2021년 가장 핫한 콘텐츠 중에 오징어 게임과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스우파)를 꼽을 수 있다. 이 컨셉에 걸크러쉬 가득한 스우파스러운 동료들과 함께 게임화하여 간호업무 버전으로 설계해 본다면?

레벨업 결과



· 안전 관리 역량 ★★★★★

· 동료애 ★★★★★

· 의사소통 능력 ★★★★★

최상급

간호전투력: Lv.5까지 152점 남음

고유옵션

- 환타 게이지 감소 38.4% (-)
- 강 증가 5.76% (+)
- 알잘딱깔센 12.23% (+)

1단계 게임은 환자 파악하기입니다. 정해진 시간안에 오늘의 일정과 교육내용을 누락없이 파악하셨네요. 218412번님 통과!

2단계는 안전한 투약입니다. 환자 확인을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탈락!
3단계는 수술 보내기, 4단계는 빠짐없이 퇴원하기!

간호 업무를 안전하게 클리어하고 OCS 로그아웃을 한다.
안전 레벨 13이 상승되었다고 팝업이 뜬다. 이로써 나의 간호 전투력은 안전역량 ★★★★★, 동료애 ★★★★★, 의사소통 능력 ★★★★★을 획득 하였다!

일이라는 단어에서 주는 의미 자체가 힘들 수도 있고 감정은 내가 억지로 조절할 순 없어도 너무 무겁지 않게 상상해 보며 잠깐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럼 즐겜!

내 마음속에 널스 파이터, 프리셉터 파이터를 뽑아주세요

스트리트널스파이터

한끼 일하고 싶은 동료에게
지금바로 투표해주세요!



01 환자 안타는 #스테이블썸

환자 안타는 "스테이블썸"



샤들~ 조용

센트하지만 순동함

스테이블썸 어랑 일하면 환자 안담...

02 실현관도 18G 잡아주는 #황금손

실현관도 18G 잡아주는 "황금손"



18G도...
많은 혈관도 문제 없음...

선생님, 저 IV 한번만... T.T

라인 못잡지 어릴림아~

여러분의 선택은?? Ready~ Fight!

KNOX에 널스스토리가 게시된 후
감상평과 함께 우리 부서의 널스 파이터를
자랑해 주세요.
선물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건 안 비밀~!

03 계속 도와주는 #만능키

계속 도와주는 "만능키"



또 뭐남았어~

뭐 해야해~

내가 해줄게!!!

04 후배 데리고 칼퇴 하는 #칼퇴 제이

후배들 데리고 칼퇴하는 "칼퇴제이"



가자 가자 애드라~ 집가자~

인사 안해도 돼~ 그냥 가~

숙신쌤님 기다려다가 인사 드리고 가야해요...?

출처 @readingnurse

KBSMC Nurse's Story